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히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지
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台洛
編輯人兼主幹 韓鍾仁
印刷人 裴成漢
1976년 11월 1일 창간

중앙회장 선임, '원로회의 추천 및 총회 인준'으로

제1차 임시총회 개최 및 정관 변경 등 의결

清州韓門의 위상(位相) 제고(提高) 및 화합돈목(和合敦睦) 고양(高揚) 경선(競選)으로 인한 폐해(弊害) 개선(改善)

중앙총친회(회장 태락)는 지난 6월 11일(화) 11시 신촌소재 K-Turtle에서 갑수명예회장, 추태고문, 태락회장, 길수회장, 선교회장을 비롯 종파문중 및 광역시도회장과 대의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중앙총친회장 선임에 관한 정관 개정(안), 시조부군 생가터 매입의 건, 제전위원회 설치 운영(안)에 대한 의안을 처리하였다.

종인상무이사의 사회로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주요참석임원 소개, 회장인사, 격려사, 2024년도 상반기 주요경과 및 종무보고 후 부의 의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였다.

태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갑수명예회장, 추태고문, 길수·선교회장 등을 비롯해 원근거리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회장단 및 임원과 대의원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에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오늘 임시총회를 통해서 현안을 보고 드리고 종사 발전방안을 수립함에 많은 임원 및 대의원분들의 참석으로 결실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우리 청주한문은 송조돈목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아 위양공부군의 숭고한 뜻을 이

어 계승할 인재를 양성해야함은 물론 선조의 유적을 발굴하고 보존 유지하는 사업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난곡리 시조부군의 태생지 터 및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청한각과 연계하여 기념관과 체험관 등을 건립하여 청주한문의 성지로 성역화하는 사업을 중점 과업으로 추진하고자함에 임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 드린다. 지난 5월 15일에는 집행부 임원분들과 시조묘역에 사초와 별초 등 정화작업을 한 후 고유제를 봉행하였으며 5월 18일에는 장학증서 수여식 행사를 하였다. 임원님 모두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총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갑수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청주한문은 명문 양반가이다. 선대의 훌륭한 업적과 명성을 이어갈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도록 뒷받침하고 일가 간 사랑하고 화합함으로써 타성씨로부터 찬양받는 자랑스러운 한문이 되도록 함께 힘써 노력해 나가야 된다. 선대의 유지와 유적을 유지 보존하고 시조부군 생가터 복원사업도 훌륭하게 이행되기를 바란다. 지난 정기총회에 이어 오늘 개최되는 임시총회가



중앙총친회 제1차 임시총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의견과 함께 태락중앙회장을 중심으로 집행부 의도대로 진행이 되고 종사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자랑스럽고 기쁜 날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으며, 추태상임고문은 오늘 임시총회는 뜻있는 날이다. 지난 25대 중앙회장 시절부터 중앙회장은 원로회의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하는 선임방식으로 개정하고자 시도했는데 이행을 못하였다. 중앙회장 선출 시 경선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많았다. 오늘 정관 개정을 통해서 질서정연한 회장 선임의 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주요 경과 및 종무 보고 후, 부의 안건의 상정과 심의를 통해 중앙총친회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현행 조항을 회장은 원로회의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는 정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다만 원로회원의 추대에 관한 절차를 신뢰성과 개관적인 공정성 제고를 위해 종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원로들 가운데 회장단의 추천으로 회장이 추대토록하고, 회장 후보자 선정에 관한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원로회원의 임기 연속성을 유지하는 등 후속 관리요건을 보완하였다. 본건과 관련해 인원을 증원한 중앙회장추천위원회, 회장단회의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원안대로 승인 되었다.

이어 시조부군 탄생지인 청한각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생가 복원과 함께 기념관, 체험관 등을 건립하여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시조부군 탄생지의 성역화 사업으로 명문 청주한씨 위상 제고 및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생가터 매입의 건을 승인하였으며 예산 조달 및 생가 건립규모, 활용방안 등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3호 의안으로 시조부군을 위시한 선조님의 제례를 정성껏 받드는 올바른 제례 문화 정립을 위한 전문 조직 육성과 송조돈목의 가치관 정립 등 청주한문의 위상 정립을 목적으로 각 종파별, 세대별, 계층별로 고르게 50인 이내로 구성하여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제전위원회 설치 운영(안)을 심의 의결하고 추후 운영 규정 제정 및 홍보 독려 후 준비위원회를 거쳐 제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기호(基虎) 제25대 중앙총친회장 별세



제25대 중앙총친회장을 역임하신 기호(基虎)상임고문(사진)께서 지난 6월 26일 노환으로 별세하셨다. 향년 96세.

1928년 11월 당진에서 출생(문정공과 31세)하신 기호회장은 초등학교 교직을 거쳐 인천광역시 공무원으로 정년퇴임 후 인천시 행정원로회원 등으로

활동하셨다. 인천광역시총친회장직을 수년간 수행하시면서 문중 및 지역총친회, 친목단체 창립과 종사 기반조성 등 종원의 관심과 참여 독려로 종사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시었으며, 2015년 3월부터 제25대 중앙총친회장으로 3년 간 재임하시는 동안 제7교 정유대 동족보를 발간하셨다. 유족으로는 미망인과 2남 2녀가 있으며 충남 당진 선영으로 모셔져 영면에 드셨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仲秋佳節

존경하는 청주한문의 일가 여러분!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풍성한 한가위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清州韓氏中央宗親會 會長 韓台洛 謹拜

(재)청주한씨장학회, 제3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 시조묘역에서, 93명의 장학생에게 7,850만원



제3회 장학증서 수여식 기념

청주한문의 긍지와 목표의식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재)청주한씨장학회(이사장 태락)는 지난 5월 18일(토) 11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소재 시조부군(휘, 蘭)의 묘전에서 태락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장학생, 학부모 등 130여 명의 일가와 관계자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제3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대학원생 3명, 대학생 61명, 고등학생 29명 등 93명의 장학생에게 총 7천 8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은 식전행사로서 시조부군에게 고유제(헌관 태락이사

장, 집례 재철부회장)를 봉행한 후 주요 참석임원 소개, 경과보고, 태락이사장의 인사에 이어 장학증서 수여, 장학생대표(이화여자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한지민)선서,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장학생들에게 축하와 함께 학업에 정진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청주한문의 역군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태락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학생들에게 축하와 더불어 함께 참석해 주신 임원과 학부모께 감사인사를 전하고, 이곳은 청주한문의 시조이신 위양공(諱 蘭)부군의 묘역이다.

1,000여 년 전에 충북 영동군 황간



장학생 대표(이화여자대학교 한지민)선서

면 난곡리에서 태어나셨고 중년에 큰 뜻을 품고 청주지역으로 이전하여 용개 뜰을 개척하고 무농정(務農亭)을 세워 영농을 권장하고 향학을 일으키셨으며, 고려태조 왕건(王建)이 후백제의 견훤(甄萱)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지역을 지날 때 10만 병사에게 군량미와 음용수를 제공하고, 몸소 출정하여 삼한통합에 큰 공을 세우신 분이다.

이에 문하태위(門下太尉·국무총리급)의 벼슬에 올랐고 삼중대광개국벽상공신(三重大匡開國壁上功臣)에 녹훈되었으며, 청주라는 본관을 부여받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시조부군

의 음덕으로 조선조에 여섯 분의 왕비를 비롯해서 수많은 상신과 공신, 대제학, 문과급제자 등을 배출하였고, 근년에도 3연속 국무총리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 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훌륭한 선조님의 긍지를 이어받아 목표를 세우고 정진노력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서 한문을 더욱 빛내주길 바란다. 지급하는 장학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청주한문 일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결실의 결과라는데 의미를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장학기금을 확충토록 노력해서 많은 후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 장학생 여러분들도 사회에 진출하면 큰 관심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는 격려와 당부를 하고 장학재단의 기반 조성과 운영에 기여해 주신 임원분들과 일가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재)청주한씨장학회는 2021년 12월 기본재산 33억 5천만원의 기금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 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37억 4,700만원으로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제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규약 승인 및 재철위원장 등 선임

중앙종친회(회장 태락)는 지난 7월 30일(화) 태락회장, 김수회장, 선교회장, 동경회장을 비롯 회장단, 임원, 제전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촌소재 K-Turtle에서 중앙종친회 산하 중앙제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경과보고, 규약(안) 심의, 위원장 및 감사 등 임원선임,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태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근거리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임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우리의 제례문화는 과거 당파분쟁으로 인해 지역, 성씨와 문중별로 기준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것은 가가레 의례이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조상을 정성껏 섬기는 제례문화가 오랜 전통이자 아름다운 미풍양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혈연의식이 강한 우리민족은 조상 제례의 품격이 가문의 위상을

나타내는 표본이 되기도 한다. 우리 청주한문은 역사 이래 훌륭한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한 자타가 공인하는 삼한갑족의 명문이다. 이에따른 청주한문의 승조돈목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조상을 보다 정성을 다해 섬기는 제례문화를 더욱 잘 보전하고 전승발전 시켜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제례전문조직 육성과 통일된 제례문화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6월 임시총회의 결의와 7월 준비위원회를 거쳐 오늘 중앙제전위원회 창립총회의 뜻깊고 의미있는 행사를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 제전위원회는 제례절차 등 전반에 걸쳐 고례사 연구 등을 통해 표준화된 제례문화를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데 충실한 촉매제의 역할에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임원 및 일가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중앙제전위원회 창립총회

의안 상정을 통해 제전위원회 규약(안)을 승인 후 위원장에 재철중앙회부회장과 종수감사와 동권감사를 선임하였으며 관련 임원은 집행부에 위임하였다.

재철위원장은 향사를 행하는 데는 여러 절차가 있고 그에 따른 일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사람이 나눠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족하지만 제례문화 정착과 운영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임원 및 일가분들의 지도편달과 성원주시기를 바란다고 인사하였다.

제수진설 및 의례정법에 관한 태락

회장의 설명에 이어 제례문화와 절차 등에 관한 상호 의견 교류 및 논의 후 행사를 마쳤다.

한편 지난 8월 30일에는 중앙회 회의실에서 제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방안 및 추석을 앞둔 별초 등 시조묘역의 정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장학기금 출연기부금 계좌 안내

국민은행 009901-04-171067

예금주 (재)청주한씨장학회

인조대왕비 인렬왕후 389주기 기신제 봉행



인렬왕후 기신제 봉행 기념(뒷줄 중앙 좌 동경회장)

조선16대 인조대왕의 정비인 인렬왕후 한씨(仁烈王后 韓氏, 1594년 8월 16일(음력 7월 1일) ~ 1636년 1월 16일(1635년 음력 12월 9일)의 제389주기 기신제 제향이 지난 6월 17일(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장흥로 90에 자리한 장릉(사적 203호)에서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장·휘릉봉향회 주관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청주한씨 문중에서는 동경부산사회장(문정공과)이 아현관으로 제례를 봉행하였다.

인렬왕후는 서평부원군(휘 준겸)과 어머니 회산부부인 창원 황씨의 2남 4녀 중 막내로, 조선 인조의 정비이며, 소현세자와 효종의 어머니이다.

1610년(광해군 2년) 9월, 선조의 손자이자 정원군의 장남인 능양군(인조)과 길례를 올리고 청성현부인(淸城縣夫人)에 봉해졌고 이 시기에 장남 왕(소현세자)과 차남 호(효종), 3남 요(인평대군)를 낳았으며 1623년(광해군 15년), 인조반정으로 능양군이 즉위하여 왕비로 책봉되었다.

인렬왕후는 인조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인조가 언관(言官)을 특별히 체직시켰을 때에는 “말이 꼭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간의 이름을 지닌 관직인 이상 처치할 때 공의(公議)를 따르지 않는다 면 임금의 덕에 누를 끼치고 언로(言路)를 막게 될 듯 싶습니다.” 하고 간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렴하고 검소하였으며 엄동설한이나 무더운 여름철에는 위사들이 고생하는 것을 염려하여 때때로 음식을

내려 주곤 하였다고 한다.

시호는 인렬(仁烈)이며, ‘인을 베풀고 의를 따르는 것’을 인(仁)이라 하고, ‘공로가 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려(烈)이라 한다. 전호는 숙녕(肅寧)이며, 휘호는 정유명덕정순(正裕明德貞順)으로 아들 효종이 ‘명덕정순’을, 고종이 ‘정유’의 존호를 추상하였다.

인조의와 합장릉인 장릉(長陵)은 본래 인조가 파주시 운천리에 인렬왕후 능을 먼저 조성하고 우측에 미리 자신의 능을 마련해두었다가 사망 후 묻히도록 준비하였고 인조 사망 후 사전에 예정된 대로 능을 조성했는데, 후에 화재가 일어나고 뱀과 전갈이 능 주위로 무리를 이루며 석물 틈에 집을 짓는 등 이변이 계속되자 영조 때 현 위치인 파주시 갈현리로 옮겨 다시 조성했다. 천장으로 합장하면서 규격이 맞지 않은 병풍석 등은 새로 마련했고, 일부 석물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따라서 장릉은 17세기와 18세기의 석물이 공존하는 왕릉이라고 볼 수 있다.

왕과 왕비가 합장된 무덤 형태로 병풍석을 둘렀는데, 면석에는 구름 무늬와 십이지 신상을 새기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모란문, 연화문 등 꽃무늬를 새겨 새로운 양식을 남겼다. 이것은 이후 사도세자의 융릉과 흥릉, 유릉으로 이어진다. 인식(왕릉의 호석이나 병풍석에 얹은 돌)에도 만개한 꽃무늬가 있는데, 중심부에 12간지를 문자로 새겨놓았다. 장명등에도 모란 무늬와 연꽃무늬가 있는데 17세기 석물 무늬의 특징을 보여주는 예다.

문정공배위 569주기 기신제 봉행



문정공배위 기신제 봉행

문정공파종회(회장 성익)는 지난 6월 20일(음 5월 15일) 성익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및 일가 등 70여명의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율동공원 내 문정사 영모재에서 문정공배위(정경부인 함양여씨)의 569주기 기신제를 봉행하였다.

초헌관에 동춘공간공파회장, 아헌관에 상량참판공과 前회장, 종헌관에 래경前중앙회감사, 축관에 동훈前공간공파회장이 분방되었으며 종호前영흥공파회장의 집례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성익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정공배위의 기신제 봉행에 경향 각지에서 많이 참석해주신 문정공과

후손분들과 타 종파에서 오신 일가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훌륭하신 선조님의 유지를 받들어 화합돈목하며 종사 발전을 위해 일가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문정공(諱繼禧)의 배위이신 정경부인 함양여씨(貞敬夫人 咸陽呂氏)께서는 문정공부군이 33세 되신 1455년에 졸하시어 금년이 569주기 되는 해이다. 부친은 좌랑 증 참판이신 휘 계(稽)이시고 외조는 청송 심의구(沈義龜)이다. 앞서 진행된 예하지파인 삼등공(휘 사신)파의 정기총회가 있어 분주했지만 종헌분들의 도움으로 기신제를 질서있게 정성껏 봉행하였다. (문정공파종회 성익회장)

절제공파종중, 선조 합동묘역 조성

절제공 묘하에 3단으로 12위 24기

절제공파종중회(회장 연구)는 선조의 합동묘역을 정비 조성하였다.

지난 2022년도에 종중회장으로 선임된 연구회장은 전국에 산재한 소중중을 방문하고 설득하여 전원 합의 하에 묘역 조성 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회장단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문 3개업체 중 시공업체를 선정한 후 2024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절제공 묘소(14세 諱仲孫 선영하에 산재해 있는 15세(子 諱 오晤·기촬·질똥·소昭) 16세(孫 諱 영령永

齡·팽령彭齡·순년舜年·순명舜命) 17세(曾孫 諱 석문碩文·말생末生·희무希武) 합 12위(총 24기)의 묘를 절제공 묘소 아래 3단 세(世)별로 구분 조성하였다.

본 사업은 절제공부군 시제 봉행 후 직계별로 묘소를 찾아 참배 제를 봉행하고, 묘소를 관리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총 1억 1,828만 5,500원의 사업비로 조성되었으며, 2024년 6월 30일 종친회 임원분들의 참석하에 준공 고유제례를 봉행하였다. (절제공파종중회 복연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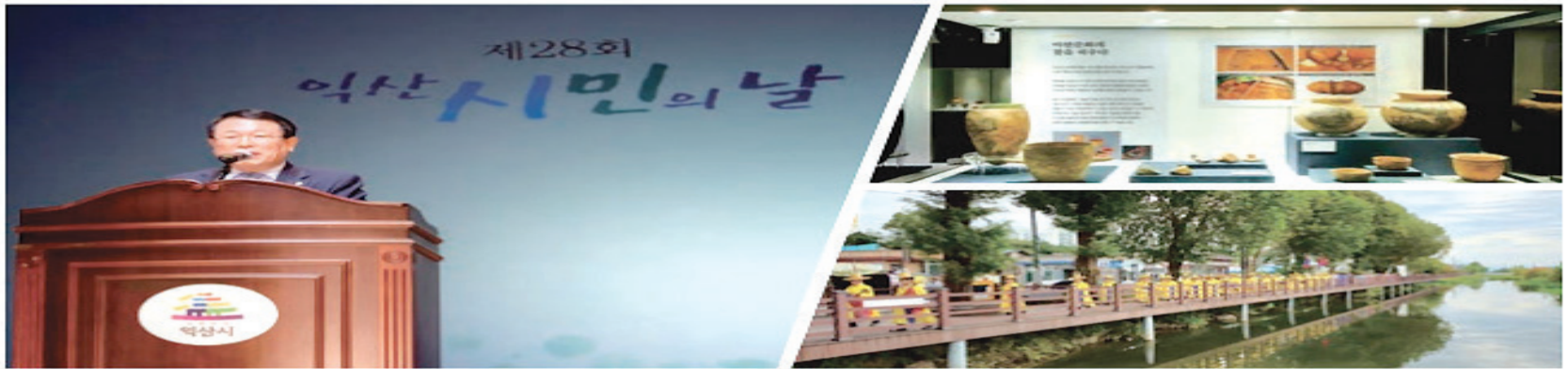
절제공종중 선조 합동묘역 전경

민선 8기 2년

한 위대한 도시 GREAT 익산
한(韓)문화를 부리로 뽐어나가다

나라이름 한

01 한(韓)문화 발상지 익산, 마한 문화 정체성 확립



익산시가 한민족의 근간인 고조선과 마한, 백제로 이어지는 한(韓)문화의 발상지로서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그간 소외됐던 마한문화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한을 주제로 한 마한문화대전을 개최한다.

마한문화대전은 10월 개최될 예정으로 올해부터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비전을 담아 10월 3일로 변경된 시민의 날 기념식과 연계 진행해 시민 자긍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호남 3대 제언이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제방으로 밝혀진 황등제를 복원해 마한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민선 8기 2주년]

키워드로 보는 익산

민선 8기 2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익산의 발전과 성과는 누구나 눈에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려온 시간만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익산! 지금 익산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키워드로 익산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나보세요.

- 출로그그램 익산
- 문화도시 도농복합 식품
- KTX 관광 청년시청
- 백제왕도 다대익산 익산현
- 녹색도시 미륵사지 바이오
- 코스트코 마한 국화축제
-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
한(韓)문화
발상지

단군왕검이 세운 고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이 위만의 반란을 피해 배를 타고 내려와 새로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우리 지역 금마입니다. 이곳 금마에서 준왕은 마한을 세우고 스스로 한왕(韓王)이라 칭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익산은 고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곳이며, 동시에 한(韓)이라는 대한민국 국호의 발상지로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 수많은 사료와 근거들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문화 발상지 익산에 대한 역사적 인식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올해 시정 슬로건으로 '위대한 도시·GREAT 익산'을 내걸고, 고조선 건국일인 10월 3일로 익산시민의 날 변경, 마한을 주제로 한 마한문화대전 부활 등을 추진하며 한문화 발상지로서 익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양수 중앙회 고문 별세

준석·철수·규동 자문위원 별세



양수(陽洙) 중앙회 고문(사진)께서 지난 8월 18일 숙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93세.

1931년 충남 부여에서 출생(공안공파 31세)하신 양수고문은 교직(대전사범학교 졸업)에 종사하셨으며 충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1961년부터 내무

부 공무원으로 근무 제23대 충청남도지사를 역임하였으며, 1990년 통일운동 단체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사무총장, 부의장을 거쳐 1999년 제10대 의장을 지내셨습니다.

또한 중앙회 고문으로서 많은 조언으로 이끌어주시는 등 종사 운영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홍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수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준석자문위원, 철수자문위원, 규동자문위원이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별세하셨습니다.

준석(駿錫, 참판공파 30세, 8월 19일 별세)자문위원은 문간공과중중회장, 서울시종친회장, 무농회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무농회장 재임 시 청한각 성역화 사업을 발의하고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를 통해 많은 종원분들의 참여를 이끌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등 종사 운영 발전과 장학사업에도 크게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국가유공자. 1929년생. 향년 95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철수(喆洙, 판사공파 31세, 8월 14일 별세)자문위원은 중앙회 감사를 역임하셨으며 종중 및 지역종친회의 운영 발전과 종원 간의 화합돈목을 위해 크게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국가유공자. 1931년생. 향년 93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규동(奎同, 참판공파 31세, 7월 30일 별세)자문위원은 중앙회 총무와 참판공파 및 예하 종중회장, 인천시종친회장을 역임하셨으며 종중 및 지역, 친목단체 등 종사의 운영 발전과 종원의 화합돈목을 위해 크게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1934년생. 향년 90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중앙종친회를 사칭, '청주한씨종사보감' 책자의 구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오면 중앙종친회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종친회에서는 어떤 책자의 구매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없습니다. 청주한씨 중앙종친회 (02)720-6370~1

제3회 장학증서 수여식 기념 사진



태락회장(중앙우)과 장학생



추태회장(중앙우)과 장학생



근우회장(중앙좌)과 장학생



길수회장(중앙)과 장학생



범석회장(중앙우)과 장학생



관우회장(중앙좌)과 장학생



삼랑(중앙좌)·중수회장(중앙우)과 장학생



규백(중앙좌)·진수회장(중앙)과 장학생



기인(중앙좌)·갑수회장(중앙우)과 장학생



직장공·대구경북장학생



달섭(중앙)·동경회장(중앙우)과 장학생



복섭회장의 자(중앙)·장훈회장(중앙우)과 장학생



이덕(중앙좌)·선교회장(중앙우)과 장학생



시조묘역 벌초·정리 고유제(앞줄 중앙 태락회장)



장학증서 수여식 고유제

운영회비(5~8월)		단위:원
이름	금액	
규백 부회장(회양공파회장)	1,000,000	
효근 부회장(직장공중중회장)	1,000,000	
진수 부회장(검교참판공파회장)	1,000,000	
상락 부회장(서울시회장)	500,000	
찬규 부회장(총의공파회장)	500,000	
천식 부회장(인천시회장)	500,000	
기호 고문(인천 남동구)	200,000	
기인 자문위원(경남 창원시)	1,000,000	
기천 자문위원(인천 동구)	200,000	
구현 자문위원(서울 종로구)	200,000	
복섭 자문위원(전남 강진군)	200,000	
승남 자문위원(광주 북구)	200,000	
상기 자문위원(인천 서구)	200,000	
도영 겸임이사(인천 동구)	200,000	
종원 겸임이사(인천 계양구)	200,000	
인숙 겸임이사(장학부장)	200,000	
영섭 겸임이사(경기 김포시)	200,000	
창수 겸임이사(제주 서귀포시)	200,000	
동권 겸임이사(경기 군포)	200,000	
현규 겸임이사(충북 청주시)	200,000	
상일 겸임이사(서울 노원구)	100,000	
규아 운영위원(경기 김포시)	200,000	
동훈 운영위원(경기 파주)	100,000	
상기 운영위원(총의공파)	100,000	
상현 운영위원(충남 당진)	100,000	
철희 운영위원(대전 서구)	100,000	
규남 운영위원(인천 서구)	100,000	
합계	8,900,000	

일반찬조헌성금(5~8월)		단위:원
이름	금액	
복섭 자문위원(전남 강진)	100,000	
합계	100,000	

개인종보비(5~8월)		단위:원
이름	금액	
안동(대전 대덕구)	100,000	
석춘(대전 서구)	100,000	
준석(부산 금정구)	100,000	
상덕(충남 당진시)	100,000	
병량겸임이사(경기 의정부)	100,000	
광세(서울 송파구)	100,000	
양수(서울 성북)	100,000	
영태(경기 용인시)	60,000	
철희(서울 강남구)	50,000	
규선(서울 강서구)	50,000	
희광(경기 수원시)	50,000	
정희(서울 금천구)	50,000	
경식(대구 북구)	50,000	
상락 부회장(서울시회장)	30,000	
성수(서울 광진구)	30,000	
기인 자문위원(경남 창원시)	30,000	
상태(서울 도봉구)	30,000	
남희(충남 청양군)	30,000	
기수(전북 임실)	30,000	
영상(경기 양평군)	30,000	
충호(강원도 원주)	30,000	

상훈(충남 공주)	30,000
총수(충북 진천)	30,000
길우 운영위원(충남 서산시)	20,000
만석(서울 중랑구)	20,000
기천 자문위원(인천 동구)	20,000
도영 겸임이사(인천 동구)	20,000
찬규 부회장(총의공파 회장)	20,000
상기 운영위원(총의공파)	20,000
무희(총의공파)	20,000
종찬(총의공파)	20,000
택규(총의공파)	20,000
복규(총의공파)	20,000
계희(총의공파)	20,000
동희(총의공파)	20,000
관희(총의공파)	20,000
상은(총의공파)	20,000
양수(총의공파)	20,000
문석(총의공파)	20,000
총수(총의공파)	20,000
장규(총의공파)	20,000
문수(총의공파)	20,000
준희(총의공파)	20,000
봉춘(대구 수성구)	20,000
기호 고문(인천 남동구)	20,000
상협(경기 시흥시)	20,000
경남(부산 서구)	20,000
규혁(서울 마포구)	20,000
덕수(서울 금천구)	20,000

상태(인천 강화군)	20,000
홍석(대전 동구)	20,000
상동(강원 횡성)	20,000
수창겸임이사(서울 성동구)	20,000
순례(서울 관악구)	20,000
성민(경기 수원)	20,000
복원(서울 영등포)	20,000
천우 운영위원(서초 강남구)	20,000
정노(서울 강남구)	20,000
기업(경남 사천)	20,000
종근(부산 남구)	10,000
옥동(서울 영등포구)	10,000
합계	2,050,000

단체종보비(5~8월)		단위:원
이름	금액	
낙안공중중회(복섭)	200,000	
진주시총친회	200,000	
충주시총친회	200,000	
검교참판공파중중회	200,000	
대전총친회	200,000	
청주시총친회	100,000	
합계	1,100,000	

장학기금납부(5~8월)			단위:원
이름	금액	누계	
판관공단위원장학회	31,000,000	201,000,000	
합계	31,000,000		

(재)청주한씨장학회 제3회 장학생

단위장학회 광역시도	이름	학교.학과.학년	
중앙회	한지민	이화여자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4학년	
	김진규	경희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3기	
	황찬수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유서빈	서울여자대학교 바이오헬스융합학과 1학년	
	손경효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1학년	
	유진웅	순천향대학교대학원 글로벌한류문화학과 5학기	
	이준학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1학년	
	한진영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2학년	
	한정원	건국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안태준	대전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과 1학년	
	조호근	수내고등학교 3학년	
	안현준	행신고등학교 1학년	
	박민후	지산고등학교 1학년	
광천공	연민준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 2학년	
	오시은	기톨릭대학교 의학과 3학년	
	한수빈	인하대학교 이동심리학과 2학년	
	안송전	숙명여자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3학년	
	백용현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1학년	
	오홍현	서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학년	
	한원영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1학년	
	심현승	고촌고등학교 1학년	
	김은우	안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한기영	서울디자인고등학교 1학년	
	세마공	한석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
		한승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1학년
		한유정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학년
한정화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1학년	
한영석		금강대학교 공공정책학부 2학년	
시외공	한현수	충남대학교 스포츠학과 2학년	
	김진서	경상국립대학교 건축공학부 1학년	
시외공	이준형	동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부 1학년	

단위장학회 광역시도	이름	학교.학과.학년
시외공	김명진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김민철	가천대학교 체육학과 4학년
	노유경	가천대학교 조소과 3학년
	한현이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4학년
	오수진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손민우	순천매산고등학교 2학년
	윤지성	대진고등학교 3학년
	백승혜	쌍별여자고등학교 1학년
	한승희	키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3학년
	장근우	중앙대학교 피아노학과 2학년
국산공	한준희	연세대학교 신학과 2학년
	한기환	백석예술대학교 영화콘텐츠학과 2학년
	한예원	무원고등학교 2학년
	한유일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2학년
	한정우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한성하	단국대학교 환경원예학과 2학년
	한승재	삼육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한진경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호텔제과제빵계열 1학년
	한선희	협성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2학년
	한현태	동인천고등학교 1학년
성호공	한혜린	삼고고등학교 3학년
	박건리	경기물류고등학교 1학년
	박강영	청북고등학교 1학년
	이재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2학년
청암공	한우석	백석대학교 중국어학과 3학년
	한성현	천안제일고등학교 2학년
	한다원	연세대학교 약학과 2학년
회양공	한동호	리츠메칸대학교 글로벌교양학부 1학년
	한사무엘	계명대학교 기독교학과 1학년
직장공	김용주	영남대학교 철학과 4학년
	한예은	원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단위장학회 광역시도	이름	학교.학과.학년
대구경북	한혜승	중앙대학교 음악학부 1학년
	한승혜	BRITISH VIETNAMESE INTERNATIONAL SCHOOL 13학년
충정공	한준희	인천국립대학교 무역학부 1학년
교위공	임현성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4학년
청파공	강정원	한양대학교 수리데이터사이언스학과 2학년
서범공	한애리	성신여자대학교 성악과 1학년
	한승호	충북고등학교 1학년
낙안공	한우경	광덕고등학교 3학년
	이상명	광주인성고등학교 1학년
대전시	한희성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 2학년
	한상준	남경대학교 본과 2학년
송산	한인섭	대전고등학교 1학년
	한지민	부경대학교 해양수산경영학과 4학년
이원공	한예리	삼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한나연	영국왕립예술대학교대학원 1학년
부산시	한상윤	조선대학교 의학과 2학년
	안시현	세정고등학교 1학년
한인(인천)	박지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
	박성은	연수여자고등학교 3학년
충성공	한주열	인천광성고등학교 3학년
	한태빈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1학년
이양공	한지훈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1학년
	한중엽	송실대학교 전기공학과 2학년
	지서현	신구대학교 치위생학과 1학년
서울	민세인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2학년
	한상빈	연세대학교 의예과 1학년
	한혜빈	인덕대학교 비즈니스일본어과 2학년
경기	한윤경	아주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1학년
	한성원	용호고등학교 1학년
전북	한강현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1학년
	한상도	남성고등학교 2학년

2024 만해축전 개막

‘소통배려’를 주제로 만해마을인제군 일원에서

만해대상 시상식을 비롯해 세미나문화 예술 행사 등 다채롭고 풍성하게...

청주한문의 선각자, 시인이자 민족 운동가인 만해(萬海) 한용운 선사의 뜻과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2024 만해축전’이 ‘소통·배려’를 주제로 지난 8월 5일 개막되어 님의 침묵 서예대전, 시 낭송 대회, 인제문화예술단체연합회 전시 및 공연, 만해대상 시상식, 님의 침묵 전국 백일장, 지역 대동제 등 각종 시상과 학술 세미나, 문화예술 행사 등으로 10월까지 만해마을과 인제군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만해축전은 동국대와 강원도, 인제군, 조선일보, (재)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먼저 만해학회가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 ‘소통과 배려의 시대, 만해의 자유 평화 사상과 문학’을 시작으로 총 8개의 단체가 만해의 문학과 사상, 종교 등 선사의 생애를 깊이 있게 다루었고, 전시행사, 도내 중·고등학생 시 낭송 대회, 문화예술 공연, 님의침묵 서예대전과 전국 백일장 등이 열렸으며, 백담계곡 일원에서는 ‘시인들과 함께 만해마을부터 백담사까지 약 9.5km를 걷는 백담계곡 순례길 걷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만해축전의 백미인 만해대상, 지난 8월 12일 인제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제28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만해대상은 평화, 실천, 문예,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는데 올해는 총 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평화대상은 국가발전과 복지에 힘쓰는 풀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실천대상은 의

료·봉사에 앞장선 김훈 일산백병원 교수와 김혜심 원불교 교무가 받았고, 문예대상은 김용택 시인과 번역가 안선재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법어에서 수상자들의 삶이 이웃에 대한 자비와 인류애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행동으로 빛나고 있다. “화해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재건하고, 국내외 수많은 사람에게 헌신적인 의료봉사와 한국문학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등, 수상자들의 인류애와 헌신은 세계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는 인류 공동의 가치로 빛나고 있다”고 말하고 만해대상을 통해 만해스님의 높은 뜻이 더 많은 이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1997년 신홍사 조실 설악 무산스님이 제정한 만해대상은 올해까지 28회를 거듭하며 국적과 인종,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빛나는 만필라 전 남아공 대통령, 달라이 라마,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김대중 전 대통령, 함세웅 신부, 마리안느 스투거 전 소록도 간호사, 조정래 소설가, 모예 노벨문학상 수상자, 산악인 엄홍길 등 150여 명의 저명한 수상자가 나와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선사의 사상·종교적 고향인 인제군 곳곳에 깃든 숨결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최응렬 만해축전 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전이 만해 한용운 선사의 평화와 생명 존중 정신을 되새기면서 함께 소통하고 배려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28회 만해대상 시상식 (수상자 및 관계자)

만해 한용운

윤효(尹曉)

식민지 사슬에
결단코 묶이지 않은 사람.
창씨개명은커녕 총독부 민적에도 올리지 않고
조국독립을 위해
세수 66년을 온전히 내던진 항일투사.
식민지 종단에
절대로 매이지 않은 사람.
입산 10년에 조선불교유신론을 쓰고 불교대전을 펴내며
불교개혁을 위해
법랍 39년을 오롯이 사룬 스님.
식민지 문단에
기어이 갇히지 않은 사람.
일본이 건네주는 사조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해 저문 별판에서 해매는 어린 양을 위해
시집 한 권을 바친 시인.
독립운동가요 대선사요 대시인이요
야단법석을 펼치는 사람들에게
어서 오세요
내 무덤 위에 피 묻은 깃대를 세우세요
다만 말하고 있는,
그렇게 바라던 조국광복 1년 앞두고
식민지 차디찬 북향집 냉골에서
영양실조로
순절한,
아아, 그 사람은
식민지 눈보라 속에서 끝끝내 꺼지지 않은
단 한 자루
촛불.

윤효(尹曉)
-충남 논산 1984년(현대문학)
등단. 시집(물결)(얼음새꽃)
(햇살방석)(침묵)
-영랑시문학상 우수상, 풀꽃문
학상, 동국문학상, 유심작품상
등 수상

한용운 선사의 정신, “145년의 세월을 넘어 홍성에 꽃피다”

제29회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 다례제 봉행

만해 한용운 선사 탄신 145주년을 맞이하여 그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리는 ‘제29회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 다례제’가 지난 8월 29일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의 만해사에서 거행되었다.

홍성군이 주최하고 홍성문화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주요 기관·단체장, 사회단체, 불교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혼무, 행장 소개, 축원, 헌화·헌향·헌다, 추모사, 법어, 만해시 낭송, 내빈헌화 순으로 엄숙히 진행되며 만해 선사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1879년 8월 29

일 결성면 성곡리에서 출생한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으로,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등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님의 침묵』, 『불교대전』 등 불후의 명작을 남긴 그는 1944년 광복을 1년 앞두고 입적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야외 전시공간과 생태습지, 문학공원 등을 갖춘 한용운 생가지 역사공원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2024년 만해선사 입적 80주년을 맞아 생가지 활성화 위한 추모행사와 학술심포지엄, 특별기획전 등을 개최하고, 문화유산 활



만해 한용운 선사 추모 다례제

용 연구용역을 통해 한용운 선사의 업적과 문학세계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한용운 선사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29일에 탄신 다례제를 거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에 한동훈 (전)법무장관

63%의 압도적 득표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갈 것”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라는 중책을 안고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다”며 “혁신하는 여당, 실력 있는 여당으로 반드시 거듭나겠다”고 밝혀왔던 당정 관계의 원활한 수평적 전환, 차기 지방선거 및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 성공 여부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에서 과반이 훨씬 넘는 압도적 득표(62.84%)에 성공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의 선출직 당 대표 선출로 4·10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103일 만에 다시 당권을 잡게 됐다.

한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의 모든 일을 잊자, 하루 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을 걸려서라도 모두 잊자’고 말씀했다”며 “그 한마디가 치열했던 경선 균열을 메우고, 상처를 봉합했다. 그래서 보수 정권 연속 집권의 밑거름이 됐



한동훈 당대표

다. 시간의 흐름에만 맡겨두지 않겠다.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은 오늘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셨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강한 힘이 모였다”며 “당원동지들과 국민께서 명령하신 변화가 과연 무엇인가. 첫째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더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 확장하라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심 이기는 정치는 없다. 민심과 싸우면 안되고 한편이 돼야 한다. 지금 거야(巨野)가 역사상 유례 없을 정

도로 쪽주하고 있지만, 민심이 일방적으로 제지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아직 덜 반응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평가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가 당대표로 있는 한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스스로 폭풍이 돼 여러분을 이끌겠다”며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간다. 미래로 가는 첫날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하자.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갈 것이다. 고맙다”고 힘줘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화려하게 부활하였고, 출중한 능력과 직설적이고 논리적인 사이다 화법, 젊고 참신한 이미지 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서 급부상한 한동훈 대표의 정치경력 기간은 200여일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돼 4·10 총선을 이끌었지만, 총선 이튿날 패배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내려놓았다. 총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 점이 수평적 당정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하며 당원과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당대

표로서 최대 당면 과제도 수평적 당정관계 안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보수정당 ‘얼굴’의 세대교체의 시작으로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약력]

1973년 4월생,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1996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2005년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09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2011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 2013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2016년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201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2020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21년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년 제69대 법무부 장관,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여의도연구원 이사장.공공인재영입위원장,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방패 코비치, 식약처 ‘진료용 기구 2등급 품목 허가’ 획득

한기연 천하종합(주)대표 개발 발명품

코로나19가 재유행되면서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패 코비치가 새로운 방역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하종합(주) 한기연대표(충성공파 31세)의 개발 발명품인 방패 코비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진료용 기구 2등급 품목 허가를 공식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한기연대표

방패 코비치는 비강 내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기기로, 이번 허가는 그동안 수행된 다양한 과학적 시험과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방패 코비치의 항균 탈취 작용, 항곰팡이 효과,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 회전 전자파 측정, 신진 대사 촉진 능력, 경락 순환구동력, 전자

파 인체 장해방지, 수맥 인체 장해방지, 오형 측정 등 다방면에 걸쳐 천하종합(주) 연구진, 원적외선 협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신뢰성 높은 연구를 수행했다.

한기연 대표는 시험 결과, 방패 코비치의 항균 탈취 작용, 항곰팡이 효과,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소멸 효과 등 모든 기능이 입증되었다. 이번 허가로 인해 방패 코비치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방패 코비치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세의료기기평가센터에서 전임상 실험하여 안전성 인증, 한국화학 실험연구원 임상실험 안전성 인증, 미국 FDA 성분검사 무해인증 및 감기예방 비염예방 코골이 예방 의료기기 3차례 등록, 유럽 의료기기 인증 ISO 13485 인증으로 안정성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방패 코비치

욱 우수한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연합매일신문이 주최한 제21회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및 올해를 빛낸 브랜드 대상에서 “코로나19 방역보건위생” 부문에서 대상 수상한 바 있는 천하종합(주) 한기연대표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지난 2003년 세계최초 기능성 제품으로 감기에 방과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코를 보호하는 ‘코골이’를 출시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음이온 팔찌를 최초로 출시하여 전국에 음이온 팔찌 유행을 선도한 장본인이다.

운영회비 및 정보구독료 납부 안내

존경하는 임원 및 일가여러분!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만 송구한 마음으로 운영회비 및 정보구독료 납입을 부탁드립니다. 임원 및 일가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운영회비와 정보구독료는 청주한문 100만 중친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중앙중친회의 운영 재원입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계좌송금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중친회
- ▲종보에 첨부된 지로용지 이용 (입금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 등 기재)
- ▲성명만으로 입금 시 중앙회로 연락 요함 (동명이인 다수, 02) 720-6370/1)

청주한씨중앙중친회